

도시가계의 10분위별 외식비 지출행태 분석

최문용¹, 모수원², 이광배^{3*}

¹청운대학교 호텔경영컨벤션학과, ²목포대학교 무역학과, ³순천대학교 물류학과

An Analysis of Eating Out Expenditure Behavior of Urban Households by Decile Group

Mun-Yong Choi¹, Soo-Won Mo², Kwang-Bae Lee^{3*}

¹Department of Hotel Management and Convention, Chungwoon University

²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Mokpo National University

³Department of Logistics, Suncheon National University

요약 우리나라 도시근로자의 가계소득과 외식비는 함께 증가하고 있으나, 시간이 경과와 더불어 가계소득에 비해 외식비 증가율이 크게 둔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계소득에서 외식비가 차지하는 비율도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외식비 지출 패턴의 변화는 소득계층에 따라 달라 외식비가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이후 감소하나 10분위의 외식비 비중이 가장 낮고 1분위의 비중이 가장 높다는 것과, 외식비 비중의 표준편차도 소득계층이 높을수록 작고 소득계층이 낮을수록 크다는 것을 보인다. 외식비모형에 회귀분석을 적용하여 소득계수가 모두 유의하며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계수의 크기가 작다는 것과 외환위기는 1분위와 10분위를 제외하고 음의 부호로 유의하다는 것을 밝힌다. 1분위와 2분위에서는 계절에 따른 외식비 변화가 없으며, 소득계층이 높을수록 계절에 따른 외식이 분명해진다는 것도 제시한다. 시간이 흐름에 따른 외식비 패턴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전향적 이동회귀를 실시하여 단순 추정에 따른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외식비의 소득탄력성 감소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밝힌다. 외식비를 분산분해하여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에서는 소득이 중요한 변수이나 소득수준이 높은 계층에서는 소득 이외의 요인들이 외식비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인다.

Abstract Korean households' demand for food consumed away from home is on the steady increase. The ratio of eating-out expenditure of the household income, however, tends to decrease recently irrespective of income groups. This paper, therefore, aims to analyse the food-away-from-home expenditures of salary and wage earners' households by income decile group. The eating-out expenditure is modelled as a function of household income and then estimated using econometric methods such as regression, rolling regression, impulse response, and variance decomposition of forecast error. The regression results indicate that the higher the income decile group is, the lower the income elasticity of eating-out expenditure is, and the high income groups enjoy seasonal eating-out, the low income groups do not. The coefficients of dynamic rolling regression are much smaller than those of static one, meaning that households tend to decrease the eating-out expenditure of their income. The impulse response analysis suggests that the eating-out expenditure increase of higher income groups lasts long relative to that of lower income groups. The variance decomposition, also, shows that household income plays much more important role in determining eating-out expenditure at the higher income groups than at the lower income groups.

Keywords : Eating-out, Income decile group, Income coefficient, Dynamic rolling regression

*Corresponding Author : Kwang-Bae Lee(Suncheon National University)

Tel: +82-61-750-5112 email: kblee@suncheon.ac.kr

Received September 17, 2015

Revised (1st October 12, 2015, 2nd October 19, 2015)

Accepted November 6, 2015

Published November 30, 2015

1. 서론

우리나라의 도시근로자 가계소득은 1990년 월 95만 원에서 2014년 474만 원으로 연평균 6.9% 상승하여 379만 원 증가하였으며, 도시근로자 가계의 외식비는 동 기간 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연평균 8.7% 상승하여 32만 원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외식비 증가를 가계소득 증가로 나눈 한계외식성향은 0.085가 되어 가계소득이 10만 원 증가에 대해 외식비가 8,500원 증가하였다. 또한 1990년 도시가계의 외식비는 식료품비의 약 1/4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었으나 2010년에는 외식비가 식료품비를 초과하였고 그 격차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Appendix Fig. 1 참조). 그런데 2005-2014년 기간의 가계소득은 연평균 4.3%, 외식비는 연평균 2.8% 증가하여, 1990-2004년 기간과 비교하면 가계소득 증가율은 2.6%p, 외식비 증가율은 5.9%p 더 낮다. 가계소득에 비해 외식비 증가율이 더 크게 둔화된 것이다. 한계외식성향도 0.056으로 1990-2004년 기간의 0.085보다 크게 낮아졌다. 가계소득 10만 원 증가에 대해 외식비 증가가 5,600원 증가에 불과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가계소득과 외식비의 관계를 보여주는 선의 기울기가 2005년을 전후하여 바뀌어서 가계소득에서 외식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감소하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Appendix Fig. 2 참조).

이와 같은 외식비 증가율의 변화와 더불어 외식비가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소득분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외식비가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클 수밖에 없으며 반대로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비중은 낮다. 문제는 이러한 패턴이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분명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다(Appendix Fig. 3 참조). 외식비의 비중이 점차 낮아짐에 따라 외식산업의 침체가 이어지자 정부는 대체휴일제를 도입하거나 노동시간을 단축하여 외식과 같은 소비를 촉진시키는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그것은 베이비붐세대가 은퇴 후 생계형 창업으로 치킨전문점이나 제과점 또는 편의점 사업에 진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외식산업은 소득탄력적인 부차적 음식업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안정과 경제활성화의 한 축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치킨전문점 점포수가 지난 10년간 연평균 9.5% 증가하여 유명 패스트푸드업체인 맥도날드의 전 세계 매장 수보다 많다는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문제는 외식산업의 침체를 막기 위해 외식비의 비중을 높이는 정책수단도 필요하지만 외식비의 증가는 다른 지출비용의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책도구의 효율성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어느 소득분위의 외식패턴에 초점을 둘 것인가로 방점이 이동되어야 한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외식비의 비중은 소득 1분위에서 가장 높고 소득 10분위에서 가장 낮다. 이것은 일견 외식산업의 부양을 위해서는 비중이 높은 저소득계층의 외식활성화에 정책의 목표를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외식비 지출규모에서는 외식비 비중과 다른 행태를 보이고 있어서 더욱 신중한 접근을 필요로 한다. 1990년 소득1분위와 소득10분위의 외식비 격차는 1990년 월 94,000원은 2014년 43만 원으로 크게 확대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2014년 소득10분위 외식비는 소득1분위 외식비보다 월 28만 원 더 많고 거의 3배에 가깝다. 따라서 외식비 지출이 소득분위별로 어떠한 패턴을 가지고 차이를 보이는가와 소득변동에 따른 외식비의 변동이 소득분위별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외식비가 과연 소득에 대해 외생적인 성격을 갖는 변수인가에 대해 정확하게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외식비 지출패턴이 바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득계층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소득계층별로 구분하여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비해 외식비를 소득의 함수로 정의하여 추정하는 연구는 찾아보기 쉽지 않고, 더욱이 소득계층별로 외식비 함수를 추정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고는 도시가계의 외식비 지출행태를 10분위 소득계층별로 밝히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 외식비 지출패턴을 개관한 후, 제3장에서 모형을 구성하여 회귀분석, 전향적 이동회귀분석, 충격반응함수 그리고 예측오차의 분산분해를 이용하여 분석한다. 그리고 제4장에서 결론을 내린다.

2. 선행연구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외식비 지출에 대해 시계열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고, 더욱이 소득계층별 외식비 지출행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Kim & Chun[1]은 외식시장 발달요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생활수준의 향상이기 때문에 소득수준의 증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외식산업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런데 외식비 지출은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가구주 교육정도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음을 보였다. 모든 교육계층에서 외식비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시간의 흐름과 더불어 꾸준히 상승하며, 소득증가는 모든 교육계층에서 외식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과, 모든 학력수준에서 소득계수가 가격계수보다 커서 소득이 외식수요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

Kim[2]은 단위근검정과 공적분검정을 통해 시계열자료와 모형의 안정성을 확보한 후 최소자승법을 이용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커피·차 소비지출의 소득탄력성을 전제가구, 근로형태, 소득계층에 따라 구분하여 추정기 위해 회귀모형을 로그변환된 커피·차 소비지출을 종속변수로, 실질소득과 계절더미변수, 추세변수를 독립변수로 하여 구성하였다. 근로자의 가구에서는 소득이 커피·차 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치나, 근로자 가구에서는 소득이 커피·차 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보였다. 또한 충격반응함수를 통해 가계소득에 일정한 크기의 충격을 가하여 소비지출의 반응경로를 조사하여 근로자 가구보다 근로자의가구가 장기에 걸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밝혔다.

Park[3]은 1985년 1분기부터 2008년 1분기까지의 분기별 자료를 사용하여 외식수요에 대한 소득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외식수요를 전가구, 근로자가구, 근로자외가구 외식수요로 구분한 후 장기균형모형과 적응적 기대모형에 의한 외식수요함수를 추정하였다. 장기균형모형과 적응적 기대모형에서 외식수요의 소득탄력성이 모두 '1'보다 커서 소득의 증가율보다 외식수요의 증가율이 더 높다는 것을 보였다. 또한 외식수요의 소득탄력성은 가구주 근로형태별로도 차이가 있어서, 장기균형모형과 적응적 기대모형 모두에서 근로자외가구보다는 근로자가구의 외식수요 소득탄력성이 상대적으로 더 큰 값을 갖는다는 것을 보였다.

Hong & Mo[4]는 가구주의 연령에 따른 외식패턴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먼저 모형에 대한 공적분 검정을 실시하여 모든 연령층에서 모형이 안정적임을 보인 후 모형을 추정하여 소득계수가 45-49세까지 상승한 후 하락한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연령별 효과가 존재하는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패널분석을 실시하여 연령별 외식패턴에 차이가 있음을 보였다. 충격반응분석을 통해 외식비가 소득에 대해 내생적이라는 것과 소득충격은 외식비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소득충격이 오랫동안 지속된다는 것을 보였다. 특히 55세 이상 연령층의 소득계수가 30대 연령층의 소득계수보다 크고 40대와 비슷한 크기라는 것과 소득충격에 대한 반응이 다른 연령층보다 훨씬 크고 오래 지속됨을 밝혔다.

Kim[5]는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도시가계와 농가의 외식비 지출함수를 추정하여 소득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소득이 외식비 지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였다. 모형을 선형모형과 비선형모형으로 구분하여 비교한 결과 선형모형보다는 비선형모형이 가계 외식비 지출을 더 잘 설명하며, 외식비 지출의 소득탄력성은 5개의 회귀분석모형에서 모두 '1'보다 커서 외식비가 소득증가에 민감한 '사치재'라는 가설을 지지한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Woo 등[6]은 외식산업에 거시경제적 변수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단변량회귀분석 모형의 종속변수로 외식비, 외식규모, 가구당 월평균 외식비, 외식업체 종사자수, 한식업체 수, 중식업체 수, 일식업체 수로 설정하고, 독립변수로 GNP, 인구, 소비자물가지수, 경제활동참가자 수, 주택보급률, 통화량, 실질소비지출액, 여성취업자 수, 무역량, 가처분소득, 가계소비지출로 하여 추정한 바 있다. Kim & Yu[7]은 경제발전과 외식과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회귀분석모형을 사용하였는데, 경제발전을 나타내는 GDP, 자동차 등록대수, 주차장 확보율, 주택보급률, 총인구를 설명변수로 투입하고, 종속변수는 외식비수, 식품접객업 허가업체 수, 일반음식업체 수, 유흥주점업체 수로 하여 추정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은 외식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로 함수를 구성하여 회귀분석을 통해 이들 변수들이 외식비에 영향을 미쳤는가를 판별함과 더불어 설명변수들이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가졌는가에 대해 밝히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이 논문에서 대단히 중요한 비중을 갖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외식비 지출패턴을 무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 규모의 소득증가 충격에 대해 소득분위별 외식비의 반응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지출패턴의 변화와 외식비의 반응을 소득계층 10분위로 구분하여 분석하는 대신 평균값에 대해서만 분석하였다.

Table 1. Increase rate of household income and eating out expenditure(%)

	1990-2014		1990-2004		2005-2014	
	income	eating out	income	eating out	income	eating out
Group 1	6.1	8.8	7.3	14.8	4.7	1.8
Group 2	6.6	9.5	8.0	14.8	4.8	2.9
Group 3	6.8	9.5	8.4	14.3	4.5	2.8
Group 4	7.0	9.6	8.7	14.9	4.3	2.7
Group 5	7.1	9.5	9.0	14.3	4.2	3.2
Group 6	7.1	9.6	9.2	14.9	4.2	3.0
Group 7	7.1	8.9	9.3	13.3	4.2	2.8
Group 8	7.1	8.4	9.3	12.5	4.3	3.3
Group 9	7.1	8.4	9.1	12.6	4.2	2.8
Group 10	6.8	7.0	8.8	10.4	4.1	2.5

3. 외식비 지출패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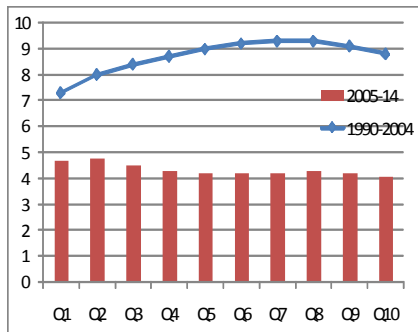


Fig. 1. Increase rate of household inco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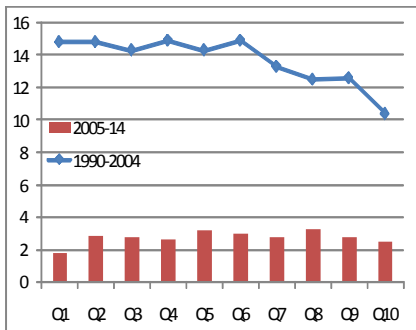


Fig. 2. Increase rate of eating out expenditure

Table 1에서 1990-2004년의 가계소득 증가율은 7.3-9.3% 범위이며 외식비 증가율은 10.4-14.9%여서 외식비 증가율이 소득증가율보다 더 크다. 이에 비해 2005-14년의 가계소득 증가율은 4.1-4.8% 범주이며 외식비 증가율은 1.8-3.3% 범주여서 외식비 증가율이 소득증가율보다 작다. 1990-2004년 기간에 비해 2005-14년 기간의 소득증가율의 감소가 2.6-5.2%p인데 비해 외

식비증가율의 감소가 7.1-13.1%p로 외식비 증가율의 하락이 소득증가율의 하락보다 훨씬 크게 줄었다. 이것은 분위별 소득계층에서도 유사하다는 것을 Fig. 1과 Fig. 2를 통해서 알 수 있다. Fig. 1에서 1990-2004년의 분위별 소득증가율을 나타내는 실선과 2005-14년의 분위별 소득증가율을 나타내는 막대그래프의 거리가 그리 크지 않아 두 기간의 분위별 소득증가율의 차이가 크지 않은 데 비해, Fig.2의 1990-2004년의 외식비 증가율을 나타내는 실선과 2005-14년의 외식비 증가율을 나타내는 막대그래프의 거리가 훨씬 커서 두 기간의 분위별 외식비 증가율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두 실선 간에 일정한 관계가 관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두 막대그래프의 형태에서도 일정한 관계를 찾아볼 수 없어서 분위별로 각기 다른 행태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2에서 외식비가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일반적으로 2004년까지 상승하였으나 이후의 기간에서는 감소하는 추세이다. 예를 들어 1분위의 비중은 1990년 5.39%에서 2004년 13.86%까지 상승하였으나 2014년 9.83%까지 하락하였다. 또한 10분위의 외식비 비중이 가장 낮고 1분위의 비중이 가장 높다. 2012년 외식비 비중은 10분위 5.38%, 1분위 10.16%이며, 2014년 1분위 9.83%에 비해 10분위는 5.69%에 불과하다. 저소득계층에 외식비가 상대적으로 가계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비율과는 달리 외식비 실제 지출액은 2014년 1분위의 외식비 지출은 월 15만 원으로 10분위 외식비 지출 58만 원의 1/4 수준에 불과하다. 외식비 비중의 표준편차도 소득계층이 높을수록 낮고 소득계층이 낮을수록 높다. 저소득계층일수록 외식비의 변동성이 크다는 것과 고소득계층일수록 여건의 변화와 영향을 적게 받으며 안정적인 외식비 지출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Table 2. Ratio of eating out expenditure to household income(%)

	Group 1	Group 2	Group 3	Group 4	Group 5	Group 6	Group 7	Group 8	Group 9	Group10
1990	5.39	5.18	5.38	5.13	5.41	4.85	5.53	5.62	5.22	5.52
1991	5.89	5.70	5.27	5.33	5.34	4.93	5.60	5.41	5.36	5.42
1992	5.88	5.75	5.53	5.67	5.53	5.57	5.53	5.27	5.49	5.58
1993	6.66	6.48	6.11	6.06	6.28	6.21	5.88	6.05	5.90	5.84
1994	7.52	6.89	6.60	7.42	6.52	6.23	6.24	6.37	6.39	6.07
1995	7.24	7.73	7.23	7.74	7.49	6.62	6.49	6.46	6.48	6.22
1996	8.33	8.23	7.73	7.53	7.60	6.94	7.05	6.45	6.64	6.60
1997	8.99	8.85	8.35	8.05	7.89	7.95	7.57	7.35	6.85	6.60
1998	7.07	7.11	6.83	7.14	6.82	6.65	6.34	5.77	6.03	5.80
1999	9.56	9.16	8.95	8.50	8.61	7.83	7.82	7.32	6.97	5.71
2000	10.85	10.85	10.59	9.56	9.83	8.77	8.75	8.16	7.54	6.16
2001	11.29	10.67	10.45	9.90	9.15	9.18	8.36	7.68	7.33	6.12
2002	11.32	10.73	9.78	9.52	9.47	8.77	7.99	8.46	6.99	6.02
2003	12.17	11.39	10.77	10.50	9.89	9.40	9.08	8.68	7.68	6.41
2004	13.86	12.13	11.34	11.21	10.52	9.85	9.16	8.48	8.09	6.72
2005	12.62	11.76	11.40	10.52	10.05	9.41	9.37	8.21	7.96	6.54
2006	11.59	10.77	10.75	10.27	9.80	9.42	8.26	8.24	7.68	6.29
2007	11.09	11.00	10.10	9.82	10.06	9.16	8.58	8.32	7.50	6.17
2008	12.10	10.81	10.39	10.03	9.54	9.12	8.88	7.77	7.64	6.17
2009	10.96	10.24	10.66	9.64	9.55	8.75	8.03	8.08	7.42	5.89
2010	10.84	10.75	10.20	9.87	9.40	9.03	8.02	7.86	7.26	5.84
2011	10.43	9.81	10.17	9.50	8.91	8.33	8.34	7.86	7.33	5.49
2012	10.16	9.69	9.86	9.28	8.87	8.63	7.91	7.84	6.82	5.38
2013	10.48	9.59	10.03	9.02	9.24	8.40	8.50	7.54	6.83	5.54
2014	9.83	9.97	9.85	9.15	9.21	8.47	8.26	7.51	7.06	5.69
max	13.86	12.13	11.40	11.21	10.52	9.85	9.37	8.68	8.09	6.72
min	5.39	5.18	5.27	5.13	5.34	4.85	5.53	5.27	5.22	5.38
sd	2.34	2.05	2.01	1.73	1.61	1.49	1.22	1.06	0.80	0.40
vc	0.24	0.22	0.22	0.20	0.19	0.19	0.16	0.14	0.12	0.07

* sd: standard deviation. vc: coefficient of variation.

4. 모형도입과 실증분석

본고는 다음과 같이 외식비를 소득의 함수로 정의하여 외식비에 대해 분석한다[8, 9, 10, 11, 12, 13, 14].

$$cons_t = a_0 + a_1 income_t + a_2 imf_t + a_3 seas_t \quad (1)$$

여기서 $cons$ 와 $income$ 은 외식비와 가계소득으로 자연대수를 취하며, imf 는 외환위기를 나타내는 가변수, $seas_t$ 는 가계절변수이다.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의 자연대수를 취한 로그-로그 회귀모형에서 기울기 a_1 은 독립변수인 가계소득($income$)이 1단위 변화할 때, 종속변수인 외식비($cons$)가 평균적으로 얼마큼 변화하는가를 나타내기 때문에 외식비의 소득탄력성을 의미한다. 이것을 수식적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15].

$$a_1 = \frac{\Delta \log CONS_t}{\Delta \log INCOME_t} = \frac{\Delta CONS_t}{CONS_t} \bigg/ \frac{\Delta INCOME_t}{INCOME_t}$$

$$= \frac{\% \text{ change in } CONS_t}{\% \text{ change in } INCOME_t}$$

모든 자료는 통계청 웹사이트(<http://kosis.kr>)에서 구하며 분석은 1990년 1분기부터 2014년 4분기까지이다. RATS(Regression Analysis of Time Series) STANDARD(v.8.01)를 이용하여 식 (1)을 통상최소자승(OLS: ordinary least squares)기법을 적용하여 추정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Table 3의 외식비 추정에서 소득계수는 5%에서 모두 유의하며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계수의 크기가 작다. 1분위의 경우 소득증가 10%에 대해 외식비 증가율은 15.35%인데 비해 10분위의 외식비 증가율은 9.89%에 불과하다. imf 변수는 모두 음의 부호이나 1분위와 10분위를 제외하고 유의하여 외환위기가 외식비 감소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3분위, 4분위, 5분위의 경우 가계절변수 D2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양의 부호를 가져 2분기에서만 외

Table 3. Estimation of eating-out food expenditure function

group	income	imf	D2	D3	D4	R ²
1	1.535* (32.33)	-0.152 (-1.458)	0.048 (0.980)	0.006 (0.119)	0.038 (0.765)	0.920
2	1.503* (42.41)	-0.233* (-2.765)	0.071 (1.772)	0.037 (0.926)	0.036 (0.902)	0.952
3	1.465* (49.58)	-0.193* (-2.617)	0.084* (2.399)	0.052 (1.489)	0.052 (1.487)	0.964
4	1.426* (51.15)	-0.143* (-2.000)	0.119* (3.484)	0.053 (1.555)	0.055 (1.609)	0.966
5	1.388* (53.63)	-0.228* (-3.377)	0.088* (2.374)	0.052 (1.610)	0.047 (1.441)	0.969
6	1.382* (59.14)	-0.148* (-2.399)	0.097* (3.274)	0.041 (1.374)	0.060* (2.030)	0.974
7	1.324* (62.51)	-0.166* (-2.936)	0.111* (4.087)	0.056* (2.084)	0.048 (1.794)	0.976
8	1.280* (68.27)	-0.162* (-3.215)	0.100* (4.177)	0.053* (2.211)	0.058* (2.399)	0.981
9	1.209* (66.32)	-0.118* (-2.418)	0.129* (5.491)	0.080* (3.422)	0.056* (2.407)	0.979
10	0.989* (50.69)	-0.093 (-1.792)	0.139* (5.592)	0.103* (4.156)	0.071* (2.875)	0.965

*p<0.05. D2, D3, D4: seasonal dummy variables. Number in parenthesis is t-statistics.

식비가 증가하였고 3분기와 4분기의 외식비는 통계적으로 1분기의 외식비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분위는 2분기와 4분기에, 7분위는 2분기와 3분기에 가계절변수가 양의 부호로 유의하여 1분기에 비해 외식비가 증가하였다. 이에 비해 8분위, 9분위, 10분위에서는 가계절변수 D2, D3, D4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양의 부호를 가져 2분기, 3분기, 4분기의 외식비가 증가한데 반해, 1분위와 2분위에서는 3개의 가계절변수가 모

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계절에 따른 외식비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소득계층이 높을수록 계절에 따른 외식의 증가가 이루어지는데 비해 낮은 소득계층에서는 계절에 따른 외식증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소득 1분위와 2분위에서와 같이 소득수준이 크게 낮은 계층에서는 여름의 하계휴가나 겨울의 동계휴가 그리고 봄과 가을의 행락을 즐길만한 여유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사

Table 4. Income elasticity of eating out expenditure: rolling regression

	2005:1	2006:1	2007:1	2008:1	2009:1	2010:1	2011:1	2012:1	2013:1	2014:4
S01	1.941	1.943	1.901	1.850	1.812	1.782	1.732	1.679	1.624	1.536
S02	1.832	1.825	1.799	1.758	1.720	1.689	1.659	1.620	1.573	1.503
S03	1.721	1.717	1.693	1.657	1.628	1.607	1.579	1.547	1.515	1.466
S04	1.681	1.674	1.642	1.616	1.587	1.563	1.538	1.506	1.478	1.427
S05	1.623	1.611	1.588	1.560	1.531	1.508	1.484	1.450	1.424	1.388
S06	1.586	1.575	1.555	1.533	1.507	1.484	1.466	1.442	1.417	1.382
S07	1.510	1.503	1.481	1.462	1.438	1.415	1.395	1.372	1.348	1.325
S08	1.439	1.430	1.408	1.392	1.372	1.359	1.342	1.324	1.309	1.281
S09	1.362	1.361	1.341	1.322	1.301	1.288	1.269	1.253	1.233	1.210
S10	1.103	1.104	1.096	1.087	1.075	1.063	1.043	1.028	1.004	0.989
D01	2.508	2.154	1.691	1.413	1.260	0.889	0.574	0.441	0.384	0.442
D02	2.023	1.837	1.581	1.373	1.219	0.973	0.898	0.746	0.595	0.645
D03	1.835	1.723	1.513	1.309	1.211	1.010	0.950	0.860	0.718	0.730
D04	1.784	1.673	1.431	1.283	1.182	1.024	0.967	0.857	0.702	0.634
D05	1.699	1.613	1.421	1.269	1.179	1.007	0.940	0.773	0.626	0.653
D06	1.736	1.594	1.401	1.252	1.157	0.982	0.961	0.870	0.718	0.700
D07	1.611	1.503	1.306	1.215	1.119	0.962	0.904	0.815	0.655	0.718
D08	1.506	1.441	1.258	1.179	1.101	0.963	0.928	0.835	0.788	0.767
D09	1.437	1.366	1.255	1.167	1.072	0.957	0.893	0.811	0.659	0.616
D10	0.908	0.915	0.978	1.064	1.060	0.947	0.811	0.685	0.498	0.4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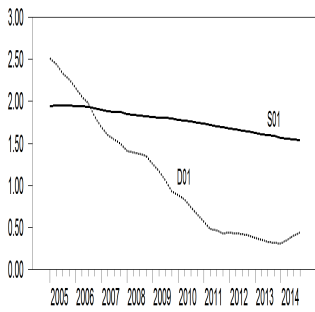


Fig. 3. Roll. Reg: Group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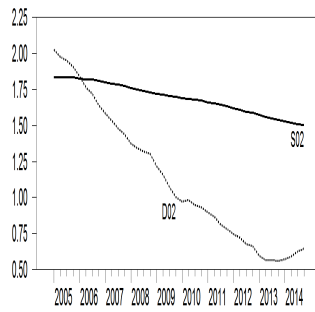


Fig. 4. Roll. Reg: Group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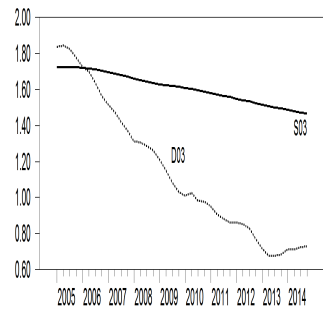


Fig. 5. Roll. Reg: Group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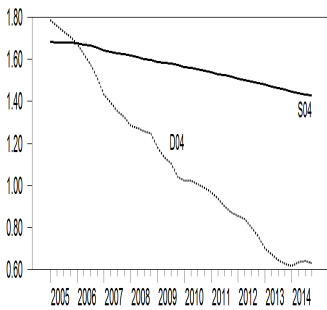


Fig. 6. Roll. Reg: Group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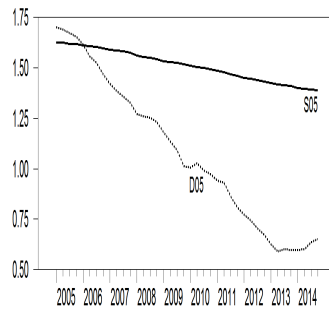


Fig. 7. Roll. Reg: Group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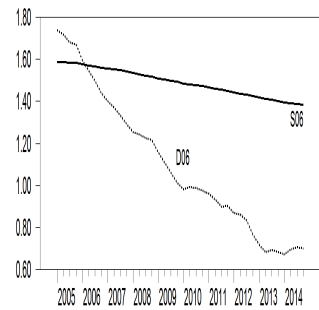


Fig. 8. Roll. Reg: Group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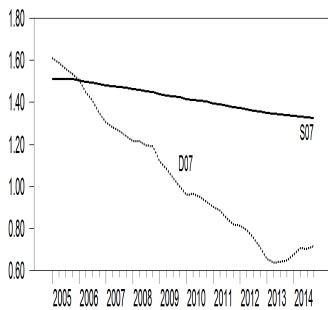


Fig. 9. Roll. Reg: Group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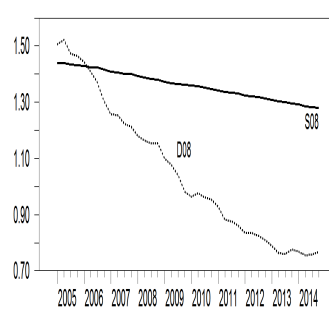


Fig. 10. Roll. Reg: Group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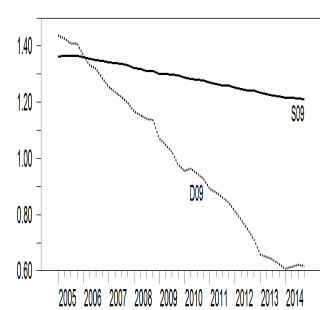


Fig. 11. Roll. Reg: Group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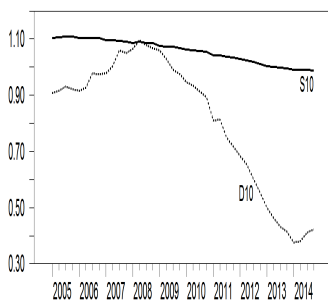


Fig. 12. Roll. Reg: Group 10

계절에 따른 외식비 지출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것은 소득1분위와 10분위의 *imf* 변수가 음의 부호를 가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음의 부호를 가지기 때문에 외환위기로 외식비가 줄었으나 통계적으로는 외식비 감소가 없다는 것인데, 가장 빈곤한 소득1분위는 외환위기로 줄일만한 외식비가 없을 정도로 평상시 외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비해, 가장 부유한 소득10분위는 외환위기에도 외식비를 줄일 필요가 없을 정도로 여유있게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시간이 흐름에 따른 외식비 패턴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전향적 이동회귀(rolling regression)를 실시한다. 전향적 이동회귀는 2가지 방법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먼저 정태적 이동회귀방식으로 1990:1-2005:1에 대해 추정한 후 계수를 도출하고 다시 2005:2의 자료를 추가 투입하여 계수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2014:4에 도달할 때까지 추정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동태적 이동회귀방식으로 1990:1-2000:1에 대해 추정하여 계수를 도출한 후 1990:2-2000:2에 대해 추정하여 계수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2004:4-2014:4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하는 것이다. 이 경우 관측치 41, 자유도 36을 유지하는 방식이 된다.

Table 4, Fig. 3-Fig. 12는 외식비의 소득탄력성을 전향적 이동회귀를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이다. ‘S’와 ‘D’는 각각 정태적 이동회귀분석과 동태적 이동회귀분석을 나타낸다. 정태적 이동회귀 소득계수는 모든 소득계층에서 감소하고 있어서 시간이 경과와 더불어 일정한 소득 증가율에 대한 외식비증가율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5분위의 경우 1990:1-2005:1기간에 소득 10% 증가에 대해 외식비는 16.2%가 증가하였으나 1990:1-2014:4 기간에는 12.1% 증가로 줄어든

것이다. 그런데 동태적 이동회귀계수의 감소는 정태적인 경우보다 훨씬 크다. 1분위의 경우 정태적 회귀계수는 1.941에서 1.536으로 하락한데 비해 동태적인 경우 2.508에서 0.442로 큰 폭으로 떨어졌으며, 가장 변화가 작은 10분위에서도 정태적인 경우 1.103에서 0.989로 감소한데 비해 동태적인 경우 0.908에서 0.421로 절반 수준으로 급감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Fig. 3-Fig. 12에서 실선에 비해 점선의 하락이 빠르고 크다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은 회귀분석을 통해 도출한 외식비의 소득계수가 과대평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5분위 경우 소득 10% 증가에 대해 외식비가 13.8%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에 있어서는 6.5% 증가를 보인다는 것이다. 더욱 외식비 지출증가폭의 감소가 단순 추정방식에 의한 결과보다 훨씬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앞에서 외식비의 단기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충격반응함수를 도입한다. 충격반응함수는 모형 내의 어느 특정 변수에 대하여 1단위 표준편차 충격을 가한 다음 모형 내의 모든 변수들이 시간 경과에 따른 반응을 계측하는 것이다.

소득상승충격에 대한 외식비의 반응은 4분기 동안 1분위가 4,185원으로 가장 작고, 10분위가 24,923원으로 가장 크다. 10분위의 반응은 1분위 반응의 거의 6배에 달한다. 또한 소득상승충격에 대해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의 외식비 반응은 계속 추세로부터 멀어지는 형태여서 소득이 외식비에 미치는 충격이 지속적인데 비해, 1분위와 2분위의 반응은 추세로 수렴하는 형태여서 소득이 외식비에 미치는 효과가 단기에 그칠 것임을 보여주고 있고, 3분위와 4분위는 추세를 유지하는 형태이다. 따라서 소득상승충격이 외식비지출에 미치는 충격은 저소득계층에서는 쉽게 쇠퇴하지만 5분위 이상의 소득계층에서는 그 충격이 오래 남아 긍정적 영향

Table 5. Response of eating out expenditure to income increase shock

steps	1	2	3	4	sum
Group 1	1,489	488	1,268	941	4,185
Group 2	2,698	1,261	2,440	1,924	8,322
Group 3	2,134	1,211	2,236	1,957	7,538
Group 4	3,804	1,451	3,425	2,248	10,926
Group 5	1,113	1,505	2,110	2,353	7,080
Group 6	2,013	953	2,451	1,739	7,156
Group 7	1,107	1,837	2,307	2,702	7,952
Group 8	368	2,732	2,274	3,472	8,845
Group 9	1,803	3,859	4,167	4,852	14,679
Group 10	3,742	6,837	6,891	7,453	24,923

Table 6. Decomposition of variance

step	Group 1		Group 2		Group 3		Group 4		Group 5	
	income	eat out	income	eat out	income	eat out	income	eat out	income	eat out
1	34.58	65.42	27.04	72.95	21.93	78.06	15.56	84.43	15.09	84.90
2	42.11	57.88	34.26	65.74	32.69	67.30	21.62	78.38	26.28	73.71
3	42.32	57.67	34.85	65.14	35.05	64.94	22.77	77.22	28.48	71.51
4	43.43	56.56	36.61	63.38	36.81	63.18	23.79	76.20	30.88	69.11
5	43.79	56.20	37.48	62.51	37.72	62.27	24.32	75.67	32.48	67.51
6	44.18	55.81	38.53	61.47	38.36	61.63	24.74	75.25	33.88	66.12
7	44.43	55.56	39.36	60.63	38.80	61.19	25.05	74.94	35.06	64.93
8	44.65	55.35	40.19	59.80	39.14	60.86	25.31	74.68	36.13	63.86

Table 6. (continued)

step	Group 6		Group 7		Group 8		Group 9		Group 10	
	income	eat out	income	eat out	income	eat out	income	eat out	income	eat out
1	16.40	83.59	19.37	80.62	5.888	94.11	2.894	97.10	0.132	99.86
2	22.34	77.65	25.46	74.53	16.47	83.52	12.31	87.68	0.275	99.72
3	23.72	76.27	27.79	72.20	18.93	81.07	13.73	86.26	2.045	97.95
4	25.11	74.88	29.76	70.23	21.13	78.86	16.11	83.88	3.463	96.53
5	26.05	73.94	31.41	68.58	22.88	77.11	17.73	82.26	5.740	94.26
6	26.87	73.12	32.89	67.10	24.37	75.62	19.36	80.63	7.970	92.03
7	27.58	72.41	34.24	65.75	25.68	74.31	20.81	79.18	10.42	89.57
8	28.21	71.78	35.48	64.51	26.85	73.14	22.18	77.81	12.81	87.18

을 끼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Table 6은 외식비의 분산분해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1분위의 경우 외식비는 8단계 후 소득에 의해 45% 설명되고 자체 변수에 의해 55% 설명되어 외식비가 내생변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분위와 3분위에서도 소득변수에 의해 각각 40%와 39%가 설명되어 외식비를 내생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4분위, 6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에서는 자체에 의해 70% 설명되고 있다. 특히 10분위에서는 소득이 13%를 설명하는데 그쳐, 외식비가 예상과 달리 소득에 크게 의존하는 변수가 아니라는 것과 외식비는 소득 외에 다른 변수들의 영향을 적지 않게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은 1분위, 2분위, 3분위와 같이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에서는 소득이 중요한 변수인데 반해 소득수준이 높은 계층에서는 소득 변수 이외의 요인들이 외식비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5.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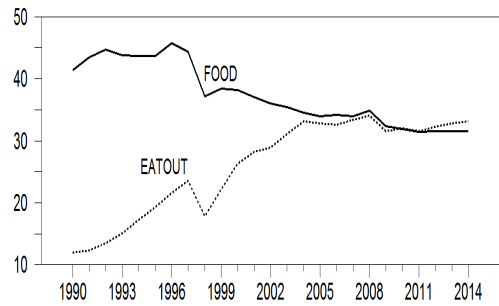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외식산업은 소득수준의 향상과 가족 구조와 생활패턴의 변화로 80년대 초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하여 비약적인 성장을 이룩하였으나 점차 외식시장이 힘

을 잃고 있다. 이에 따라 본고는 외식비를 소득의 함수로 정의하고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10분위별 도시가계의 외식에 대한 특성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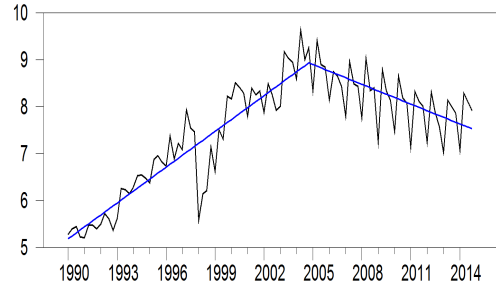
먼저 소득계층별로 외식비 지출행태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모형을 추정한 결과 소득계층에 관계없이 소득증가는 외식비 증가로 나타나며 소득계층이 낮을수록 외식비의 소득계수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소득계층이 높을수록 계절에 따른 외식비 지출이 분명했으며 가장 낮은 1분위와 가장 높은 10분위는 외식비가 외환위기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간이 흐름에 따른 외식비 지출패턴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전향적 이동회귀를 실시하여 단순 회귀분석을 통한 결과와 달리 상당히 큰 폭의 계수하락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도 밝힐 수 있었다. 단기적인 지출패턴을 살펴보기 위하여 충격반응함수를 도입하여, 소득계층이 높은 계층은 소득증가에 대해 외식비 증가반응이 오래 지속되는데 비해 소득계층이 낮은 1분위와 2분위는 조기에 수렴되었다. 마지막으로 분산분해를 통해 고소득계층에서는 소득이 외식비를 설명하는데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데 반해 저소득계층에서는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도 밝힐 수 있었다.

Referenc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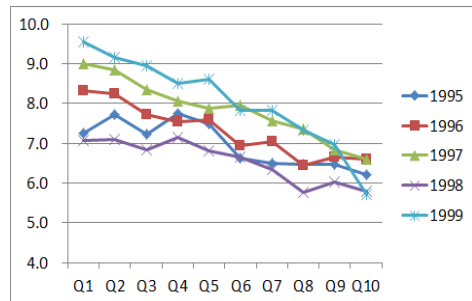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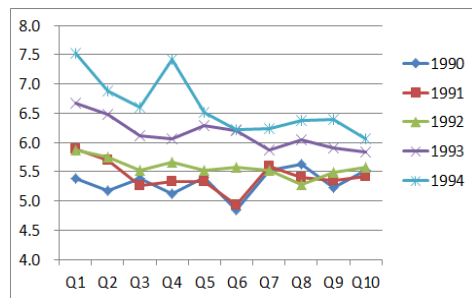
- [1] Y. S. Kim, S. S. Chun. Effect of Educational Attainment of Household Head on Eating-out Demand. *J. of Korean Society Food Sci Nutrition*. 34(9): 1407-1413, 2012. DOI: <http://dx.doi.org/10.3746/jkfn.2005.34.9.1407>
- [2] S. H. Kim. The Impact of Household Income on the Coffee and Tea Drinking Expenditures: A Study Focused on Employment Type and Income Bracket. *Journal of Tourism Sciences*. 36(8): 231-247, 2012.
- [3] J. S. Park. A Study on the Income Elasticity of Eat-out Demand. *J. of Foodservice Management*. 13(1): 59-77, 2010.
- [4] K. W. Hong, S. W. Mo. Eating-out Patterns by Age of Household Head. *Korean Journal of Tourism Research*. 21(4): 173-187, 2007.
- [5] D. R. Kim. The Influence of the Economic Growth on the Foodservice Industry. *Journal of Foodservice Management*. 7(3): 165-184, 2004.
- [6] M. H. Woo, J. H. Lee, I. J. Chung. The Influence of Macroeconomic Environmental Change on the Food Service Industries. *Journal of Tourism and Leisure Research*. 15(2): 79-98, 2003.
- [7] S. J. Kim, H. K. Yu. A Study on the Influence of Local Economic Environmental Change on Food Service Industries. *Journal of Foodservice Management*. 7(2): 65-82, 2004.
- [8] B. S. Yu, S. S. Shin. An Analysis of Food Consumption away from Home for Urban Household in Korea. *Journal of Agricultural Policy Studies*. 23(1): 1-24, 1996.
- [9] S. G. Lee. A Study of Urban Household's Demand Function and Expenditures Determinants for Eating-out. *International Journal of Tourism and Hospitality Research*. 28(3): 117-132, 2014.
- [10] G. C. Hong. Comparison with Income Elasticities of the Eating-out and the Drinking. *Journal of Hospitality & Tourism Studies*. 10(4): 268-276, 2008.
- [11] P. Byrne, O. Capps, A. Saha. Analysis of Food Away From Home Expenditures for US Households,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78: 614-627, 1996. DOI: <http://dx.doi.org/10.2307/1243279>
- [12] H. H. Jensen, S. T. Yen. Food Expenditure Away From Home by Type of Meal. *Canadi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44: 67-80, 1996. DOI: <http://dx.doi.org/10.1111/j.1744-7976.1996.tb00143.x>
- [13] V. McCracken, J. Brandt. Household Consumption of Food Away From Home: Total Expenditure and Type of Food Facility,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69: 274-284, 1987. DOI: <http://dx.doi.org/10.2307/1242277>
- [14] S. Yen. Working Wives and Food Away From Home: The Box-Cox Double Hurdle Model.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75: 884-895, 1993. DOI: <http://dx.doi.org/10.2307/1243976>
- [15] Y. R. Kim, C. K. Min. *Statistics for Business and Economics*, Myungkyung Publishing Co., 373, 2006.,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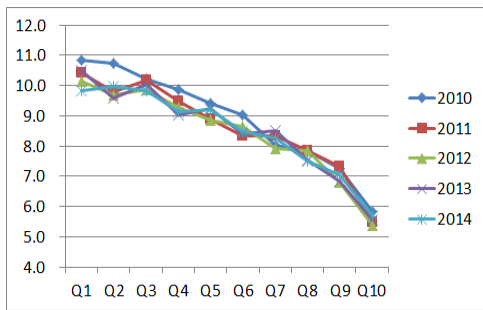


Appendix Fig. 1. Food and eating out



Appendix Fig. 2. Ratio of eating out expenditures expenditure to household income(%)





Appendix Fig. 3. Ratio of eating out expenditure to household

이 광 배(Kwang-Bae, Lee)

[정회원]



- 1987년 2월 : 전남대학교 무역학과 (학사)
- 1993년 8월 : 전남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석사)
- 1997년 2월 : 전남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박사)
- 1999년 9월 ~현재 : 순천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교수

<관심분야>

국제관광, 관광비즈니스, 외식산업

최 문 용(Mun-Yong, Choi)

[정회원]



- 1983년 2월 : 동국대학교(학사)
- 1991년 2월 : 일본 조치대학 (Sophia Univ)대학원 경영학과(석사)
- 2014년 8월 : 한양대학교 대학원 관광학과(관광학박사)
- 2009년 3월 ~현재 : 청운대학교 호텔경영컨벤션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테마파크, 리조트개발, 컨벤션산업

모 수 원(Soo-Won, Mo)

[정회원]



- 1980년 2월 : 전남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 1982년 2월 : 전남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석사)
- 1988년 8월 : 전북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박사)
- 1983년 3월 ~현재 : 목포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관심분야>

국제관광, 계량관광, 외식산업